

## 부산 구포(龜浦)의 어원 연구

이근열\*

1. 들머리
2. 지명 변화 원리
3. 구포의 어원 고찰
  - 1) 감우내 어원
  - 2) 굿개 어원
  - 3) 거북 어원
4. 구포의 어원 분석
  - 1) 구포의 지명 정보
  - 2) 구북포, 감동포, 구포 어원
5. 마무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감우개, 굿개, 거북개’ 등의 다양한 어원으로 해석되는 구포관련 지명을 여러 지명 정보를 이용하여 새롭게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구포는 감동포, 구법포, 구북포 등 다양한 지명으로 불리며, 신라성인 의성이 있고 큰 하천인 덕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고대부터 대단위 주거 단지가 있었으며, 동래와 양산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군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구포를 단순히 거북이라는 한자음에 이끌려 해석하면 다양한 지명을 해석할 수 없고 관련 지명과 지물의 상관성을 설명할 수 없다. 여러 지명 정보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덕천은 큰 하천으로 이곳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강사(gonyal@naver.com)

에 위치한 신라성인 의성은 ‘큰 성’으로 덕천에 위치한 성으로 보이며, 구법포는 큰 물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나루로 해석되며 감동포도 역시 ‘큰 갈래에 위치한 나루’로 구법포와 그 어원을 같이 한다. 구포는 구법포에서 2음절 지명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두물머리인 이포에서 귀포로 바뀌고 이것이 거북 구로 바뀌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구법포나 감동포, 구포는 두 물이 만나는 곳, 혹은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큰 나루라는 뜻으로 어원을 추정할 수 있다.

\* 주요어: 부산 지명, 구포, 구법포, 감동포, 거북개

## 1. 들머리

지명은 해당 고장 사람들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명명된다. 지명 명명의 인지적 특성이란 해당 고장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한 명명 의도와 기억의 편이성에 따른 명명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낯선 지역을 가 본 후에 다시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방향과 위치와 관련하여 명명하고, 혹은 특정한 지역 안에서는 그 지형을 인식할만한 특정한 지물, 지형, 산, 강, 바위 등에 따라 그 속성을 구체화해야 다른 사람에게 인지적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추상적인 지명이나 거창한 지명은, 타인이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명명된 지명이 아니라 후대에 통치자나 소유자가 자신의 권위나 바람을 담아 새롭게 명명한 경우가 많으며, 후대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분석되거나 풍수지리나 전설을 통해 미화된 지명일 수도 있다.

구포(龜浦)의 경우, 거북 구에 이끌려 거북에 대한 전설이 고정되고 거북을 ‘신’으로 해석한 학자들이 김해의 구지봉과 연결하여 구포를 해석하기도 하고, 풍수지리에 능통한 사람들은 범방산(泛方山)

의 한 줄기가 낙동강 물을 향하여 머리에 돌을 이고 있는 모습이 거북이와 같아서 붙인 지명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포는 ‘감동포(甘同浦)’, ‘구법포(九法浦)’ 등의 다른 지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에 그 어원이 의심스럽다. 특히 동일한 지명이 시대적 차이를 두고 다르게 바뀐 것은 원래의 지명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 의한 잘못된 전사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지명은 보수성이 강해서 한번 획득하면 잘 바뀌지 않고 고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다른 어원의 지명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본래의 지명에 대한 어원 의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다른 지명 표기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sup>1)</sup>

또한 천오백 년 전 신라와 가야의 결전지로 알려진 황산강(낙동강)과 덕천이 만나는 지점인 이곳은 지금도 신라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역사적인 지명이라는 점 등의 지명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거북’이나 ‘신’ 등의 글자형에 이끌린 전설이나 신화에 의존한 추상성으로 어원을 추정하는 것은 지명의 인지적 특성에 맞지 않은 것이다.<sup>2)</sup>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 ‘구포’의 여러 지명을 확인하여 지명 간의 연관성, 해당 지형의 특성, 지물과의 관련성, 한자음의 재구 등을 통하여 그동안 추상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구포의 어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여러 개로 표기된 지명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1) 고유 지명은 한자가 도입된 이후에 한자로 정착되었다. 고유지명이 음차나 훈차에 의해 이두식 표기로 바뀌고 이것이 나중에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2음절 한자어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동래의 경우, 내산국과 거칠산국을 합하여 ‘거칠산군’이 되었다가 다시 ‘동래군’으로 정착되었다.

2) 황산강은 양산 물금의 황산, 지금의 물금의 오봉산 앞을 흐르는 낙동강의 일부를 일컫는 지명이다.

## 2. 지명 변화 원리

한자로 표기된 고유 지명은 태생적으로 해석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명은 보편적 언어 변화의 규칙에 의해 변화하며, 지역인들의 어원 의식의 차이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지명 변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인의 지명 명명 방식에 따라 명명된 고유 지명은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어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다른 어형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바뀐 한자 지명이 후대 토박이들에 의하여 본래 어의를 잃어버리고 청각영상의 유사성에 이끌려 다른 어원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정착된 지명은 그 어형에 해당하는 전설과 결합하여 지명전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명은 본래 지명의 말뭉치 해석을 어렵게 하여 전설에 따른 유연성이 있는 전설 지명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전설 지명으로 된 지명은 정교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증거물이 존재하므로 그 가치를 부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지명의 명명방식의 정교한 추적과 지형, 관련 지역의 상대적인 지명 등을 고려하면 그 어원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 동래에 있는 윤산(輪山)의 경우, 구월산, 구불산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어원에 대해서는 산 모양이 수레바퀴 모양으로 둥글다 해서 ‘바퀴 모양의 산’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산의 형태로 지명을 명명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어원 추정일 수 있다. 즉, 산의 형태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명명될 수 있는 것으로 지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법이 아니다. 이는 같은 모양의 산이라도 보는 사람의 위치, 인지 구조 등의 차이에 의해 다른 모양의 명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윤산의 지형을 살펴보면 여러 봉우리가 있는 산이며 독메가 아니므로 둥글지 않다. 그러나 ‘바

3) 이에 대한 고찰은 이근열, 『부산 동래 지역 고개 연구』, 『우리말연구』 제23집, 우리말학회, 2008, 10쪽, 16~17쪽을 참고할 것.

퀴'로 어원 인식된 지명은 나중에 '구르다, 구울다'로 인식이 전이되어 구불산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어원이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자 유사한 어감의 구월산으로 전이된 것이다. 그렇다면 '운산'의 어원이 바퀴 등의 형태적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어원은 운산과 관련한 상대적인 지명과 여러 지명 정보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운산이 있는 마을이 '가마실' 즉, '곰실'이라는 점<sup>4)</sup>, 동래의 진산(鎭山)이라는 점, 동래 읍성의 마안산(마을 안산)의 북쪽 밖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퀴와 유사한 어감인 '밖+에'의 '바케'에서 어원 의식이 부족하여 '바퀴'로 잘못 대응시킨 것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5)</sup> '바케'는 주산인 마안산 밖에 있는 산으로, 마안산이 '마을(동래성) 안'에 있는 산과 대응되게 명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6)</sup>

이러한 변화는 지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 변화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흔히 '주름잡다'는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동이 되어 처리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다리미로 주름을 잡는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야에 통달하거나 잘하는 사람으

- 4) 곰은 '곰, 고마, 가마'로 변화하는데, '크다'는 뜻도 있지만 북쪽, 뒤쪽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5) 부산 방언에서는 '위치+조사(에)'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낱말이 많다. 예를 들어 '들에끼'는 '들에서 일하는 사람', '물에끼'는 '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줄여 '물에, 들에'로 나타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 6) 동래성 안에 있던 마을인 수안동(水安洞)은 수안(首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지명의 유래는 당시 동래부의 수장이던 동래부사가 집무하던 동현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어 가장 으뜸되는 관아라는 뜻으로 수안(首安)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며, 수안(水安)동은 땅을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등 물(水)이 흔해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한편 이곳에 동래성의 수문이 있어서 수문 안의 동네라는 뜻으로 수안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물'은 읍성 내의 마을의 뜻인 '믈>물'의 변화에서 파생되어 나온 지명 해석일 뿐이다. 즉, '믈>물'의 변화에서 '물'이 말(馬)로 인식되어 동래읍(마을) 안에 있던 산인 '물안산'이 '마안산'이 되듯이 '읍성 안의 마을'이란 뜻인 '물안'의 '물'이 '물'로 인식되어 수(水)로 대응되어 해석되어 오다가 물이 나오는 동네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자 '수(首)로 대응해서 나타난 지명일 수 있다.

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주름이라는 말이 현재 옷감에 주름을 잡는 것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식으로는 이러한 해석밖에는 나오지 못하며, 논리적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여 그 어원이 고정되어 간다. 그러나 원래 ‘주름잡다’의 주름은 ‘주름’이 그 어원이다. ‘주름’은 ‘집주름’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집 흥정을 붙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으로 ‘가쾌’(家儻)라고도 불렀다. 집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은 한 동네에 오래 살면서 그 동네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며 동네 사람을 속속들이 잘 알아야 하는 까닭에 주름 잡는 일이 바로 그 동네를 잘 알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되었던 것이다.<sup>7)</sup> 후대인들이 이런 의미를 모른 상태에서는 ‘주름>주름’으로 음운 변화하고 이것이 다시 바지 주름으로 고정하는 단계를 거친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사물의 명칭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된다. 복분자의 경우, 원래 한자의 의미로는 ‘단지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복분자의 형태와 관련된 것이다. 복분자 딸기는 여느 딸기와 달라서 그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딸기의 경우 주로 형태나 속성에 의해 명명되기 때문에 복분자의 경우도 이러한 명명적 특성과 관련한 것으로 자연스런 명명법에 속한다.

그러나 복분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에 요강을 뒤집을 만한 힘을 주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해석이 붙은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먼저 복분자의 한자를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딸기 모양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요강을 엮을 만한 힘을 주는 딸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와 관련해 나이 많은 영감의 민담도 함께 만들어서 전해지게 되었다. 원래의 명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어원해석이 민담까지 합쳐지자 ‘정력적’인 딸기의 특이성까지 보태어 고정되기 시작하고 아직까지 그 어원과 멀어진 상태로 굳어진 것이다.

7) 복덕방에 대한 어원은 전우용, 『서울은 깊다』, 돌베개, 2008, 328-333쪽을 참고할 것.

부추의 경상도 방언형인 ‘소풀’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낱말이다. ‘소풀’은 어원적으로 ‘소가 먹는 풀’로 인식된다. 그러나 정구지는 소가 잘 먹지 않는 풀이고 사람들이 먹는 중요한 것을 소에게 먹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소풀’은 ‘소’라는 어형에 이끌린 어원 해석이 될 수 있다. 소풀은 ‘솔’로도 불린다는 점에서 ‘솔풀’이 그 어원일 가능성이 있다. ‘솔풀>소풀’의 변화는 ‘크탈락’의 자연스런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솔’은 ‘소나무의 잎’의 ‘솔’과 음성적인 유사성이 있으므로 ‘솔잎’에서 유추된 것일 수 있다. 즉, 솔잎의 형태는 가늘고 좁은 형태로 ‘솔다’의 ‘솔’과 같은 어원이며 이것과 잎 모양이 유사한 부추의 속성에서 그대로 전이한 것이다.

이처럼 지명은 다른 어휘 변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명에서 해당 지역의 어원 의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정착되므로 현재의 지명 한자에 이끌린 어원 해석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 3. 구포의 어원 고찰

#### 1) 갑우내 어원

구포가 ‘갑우내’라는 낙동강가에 있기 때문에 ‘거뵈개’라 하였고 이것을 한자로 옮긴 것이 구포(龜浦)라고 보는 경우이다.

(1) 정인보(鄭寅普)는 가야(伽倻)란 반도의 가운데를 흐르는 낙동강에 붙여진 강물 이름을 의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 물줄기는 반도 남서부의 동서(東西) 중간을 뚫고 흘러내리므로 ‘갑우내’라고 부르던 것이 ‘가부’는 곧 정중(正中)의 뜻으로 지금의 ‘가운’의 원래말이므로 가야는 곧 갑우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지금의 산천 이름으로는 아직 옛날의 호칭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있는데, 김해의 구지봉(龜旨峰)이 ‘거뵈티’이고 ‘거뵈’가 곧 ‘가뵈’이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가 구포(龜浦)인데, 구포는 ‘거

뱀개'를 말하는 것이다. 밀양지방의 강기슭에 구령산(龜齡山)이 있는데, 이는 '거뱀나'이며 곧 '가뱀내'이다. 현풍지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큰 하천 하류를 구천(龜川)이라 하며 선산지방의 여차리진(餘次里津)의 건너편에 구미(龜尾)라는 지명이 있다. 낙동강 물줄기가 즉 가운데 하천의 뜻인 '갑우'이다. 이와 같이 낙동강의 상하에 구(龜)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은 것을 보면 강물이름이 '갑우내'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구포라는 말은 '거뱀개'를 한자로 적은 말이고 '거뱀개'는 낙동강 물 이름인 '갑우내'에서 왔다는 것이다.(『부산지명총람』 3권, 96쪽)

(1)에서 구포 어원인 '거뱀개'가 낙동강인 '갑우내'에서 왔다고 보고, 그 근거로 낙동강 주변의 거북과 관련한 지명이 많음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오류가 있다.

첫째, 낙동강을 '갑우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근열(2008)에서 지적했듯이 낙동강의 명칭은 큰 흐름을 보고 명명한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지적으로 편리한 관점에서 명명된 것이 나중에 조운이 발달되고 수로가 전체적으로 인식된 후에야 하나로 통일된 강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낙동강만 하더라도 구포지역에서는 세 갈래로 나뉜다고 해서 '삼차강(三叉江)'이라 부르고 양산 물금지역에서는 황산 앞에 있다고 해서 '황산강(黃山江)'으로 부른다. 또 원동에서는 용당이 있는 강이라 해서 '용당강(龍塘江)'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sup>8)</sup> 역사적으로는 '황산강'이란 지명이 가장 오래된 지명으로 가야와 신라의 접전지로 알려져 있지만 '갑우내'라고 표기된 역사 기록도 없고 현재 이곳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는 지명이다.

둘째, '갑우내'의 '갑우'가 남부지역의 동서 중간을 뚫고 흘러 내린다는 의미로 명명한 지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낙동강이 남부 지역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옳지만 지리적

8) 이근열, 『부산 동래 지역 고개 연구』, 『우리말연구』 제23집, 우리말학회, 2008. 10, 5-6쪽 참고.

으로 동서의 중간을 흐른다는 사실은 지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sup>9)</sup> 가야의 중심지인 김해는 낙동강 하류에 형성된 삼각주에 위치해 있는데, 낙동강이 구포(龜浦) 상류 2km 지점에서 둘로 크게 나누어지면서 거대한 삼각주 하중도(河中島)를 형성하고, 다시 여러 갈래로 세분화하면서 여러 작은 하중도를 분리시키고 있다. 과거엔 현재에 비해 물길이 많이 달랐겠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 가야가 갈라진 물줄기란 뜻의 ‘가라’ 혹은 ‘가락’이라는 의미는 지형적으로 유사성을 가지지만, 가운데를 흐른다는 뜻의 ‘갑우내’에서 기원한다는 설은 지형적으로 검토해 보면 오류가 된다.

셋째, 거북이 ‘거뵤’에서 유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북의 고유형은 ‘거뵤’이며 이것이 나중에 ‘거북’으로 변화하고 후대에 ‘거북’으로 고정된 것이다. 특히 ‘거뵤, 거북’의 어형은 ‘거뵤’ 혹은 ‘가뵤’와 어형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가운데에서 유래한 ‘갑우’가 ‘가뵤’ 혹은 ‘거뵤’로 바뀌고 이것을 ‘거북’으로 보고 ‘구포’로 변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된다. 지명어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언어 변화의 규칙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지명 변화의 논리적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 2) 굿개 어원

구포가 ‘굿개’로 고대의 제사인 굿을 하는 나루의 뜻으로 보고 구포의 ‘구’를 신(神)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2)를 살펴보자.

9) 낙동강은 강원 태백 함백산(咸白山: 1,573m)에서 발원하여 상류부에서는 안동을 중심으로 반변천(半邊川)을 비롯한 여러 지류를 합치면서 서쪽으로 곡류하다가 함창(咸昌) 부근에서 다시 내성천(乃城川)·영강(嶺江) 등 여러 지류를 구심상(求心狀)으로 받아들이고, 유로(流路)를 남쪽으로 돌려 상주(尙州) 남쪽에서 위천(渭川)을, 선산(善山) 부근에서 감천(甘川), 대구(大邱) 부근에서 금호강(琴湖江), 남지(南旨) 부근에서 남강(南江)을 합친 뒤 동쪽으로 유로를 바꾸어 삼랑진(三浪津) 부근에서 밀양강(密陽江)을 합치고 나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 남해로 들어간다.『두산 백과사전』, 두산동아)

(2) 구포를 굿개로 보는 견해는 고대의 제사인 굿을 하는 나무란 뜻이다. 굿은 원시신앙 또는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에서 중심세력이 있었던 지역의 중심 행사의 하나이다. 따라서 구포는 굿개이니 옛날 제사가 행해지던 장소의 하나로 상정될 수 있다. 한편 구포의 구는 신(神)을 뜻하는 것인데, 가락국의 건국설화에 나오는 ‘구하구하(龜何龜何)’는 ‘거북아 거북아’라는 말인데, 즉, ‘검아 검아’와 같다. 검이란 신(神)을 뜻하는 말이므로 결국 ‘신이 시여 신이시여’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구포에서 만덕 고개 너머에 있는 동래온천도 옛 이름은 구야온천(龜也溫泉)이라 하였으며 구야온천 뒷산을 금정산(金井山)이라 하는데, 구야(龜也)와 금정(金井)이 모두 신천(神泉)임을 뜻하는 말이다. 또한 『양산군지(梁山郡誌)』에 나와 있는 구포에 관한 기록을 살펴 보면 ‘감동진 일명 구포(甘同津 一名 龜浦)’라고 하여 구포를 ‘감동나무’라고 불러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감동(甘同)이란 신(神)의 뜻이므로 구포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부산지명총람』 3권, 96~97쪽)

(3) 구포에는 원시신앙의 유습(遺習)이 전해져 오는데 구포대리에는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나무가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구포에서는 마을의 안정과 풍요를 비는 별신(別神)굿을 지내 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민속신앙의 유적으로 비석골에는 장승이 있었고 구포장터의 나무쪽으로 솟대(蘇塗)가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래서 구포는 제사를 지내는 갯가, 굿을 하는 갯가로서 굿개이니 신(神)의 의미를 내포한 구포(龜浦)가 되었다는 것이다.(<http://nakdong.kccf.or.kr>, 검색일: 2008. 12. 20)

구포가 ‘굿을 하는 갯가’인 ‘굿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고대의 제사를 지냈던 곳이 이곳 구포라고 추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이곳이 고대의 제사 지역이었다는 근거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유로 (3)과 같은 근거가 제시되어 굿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3)에서 원시신앙의 유습으로 당산나무, 별신굿, 장승, 솟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민속신앙은 어느 지역이나 존재하는 신앙으로 특별히 이곳에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특히, 별신굿은 조선 시대 이래로 전해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굿개라고 명명할 당시의 풍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지역은 가야와 신라의 접경지역으로서 잦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이에 따라 중요한 지명으로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도 등장한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감동진’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증산성과 구포성 같은 신라시대 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이다.

또한 『삼국사기』 「제사조」에는 신라의 지방 제후가 왕명에 따라 국가제사를 지내는 중사(中祀)가 있고 4독(瀆)을 두어 그런 제사를 행하게 했는데, 그 중 한 곳이 ‘황산하’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사독은 한강과 포항 곡천강(홍해), 금강유역(웅진), 낙동강(가야진) 4곳이다. ‘황산하’는 황산 앞에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을 의미하며 가야진은,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 등의 사료에 의하면, 신라 19대 눌지왕(서기 450년)이 강 건너 가야를 공격하기 위해 왕래하던 자리로, 후에 낙동강 수신(水神)에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굿개가 될 곳은 가야진사가 있었던 양산 원동면 용당이 더 유력하며 구포가 굿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sup>10)</sup>

10) 신라의 서쪽이 되는 이 나루터는 가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신라와 백제와 경계 지역으로 바로 백제를 정벌하러 나가는 전초기지였고, 멸망한 가야 잔존세력들을 막아내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바다를 건너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왜구들을 막는 신라 병사들의 주둔지였다고 한다. 그 흔적으로 나루터가 있었던 마을을 창나리, 창날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이 나루가 창고가 있는 나루터였으므로 창(倉)나루라 불리었다는 구전이 있다. 가야 잔존 세력은 물론 강을 따라 올라오던 왜구(倭寇)와 서쪽의 백제(百濟)까지도 이곳으로 진출하여 신라를 괴롭히는 곳이라 신라 조정에서는 그들을 막아내고 수비하기 위해 많은 장병을 주둔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중앙에서 제사 용품을 보내 수비하다 죽은 장병들의 혼을 위로하고 주둔하고 있는 장졸들의 무운을 빌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곧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에 올라 있는 ‘가야진명소’인 것이다.

다음으로 구포의 ‘거북’이 ‘검’에 대응되고 ‘신’으로 해석되는 것은 어원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거북을 신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지가’를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유래되는데, 이는 지명의 명명 방식에 타당하지 않다. 구포가 신의 포구라면 신과 관련된 설화나 전설이 존재해야 하지만 단지 곳을 하던 곳이라는 이유로 ‘곳’이 ‘신’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전설에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거북 지형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신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게 된다. 어원적으로 ‘검’이 ‘크다, 높다’는 뜻으로 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므로 ‘감동포’의 ‘검’은 어원적으로 ‘신’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러나 감동포의 ‘감동’이 구포와 연결되는 유연성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 3) 거북 어원

구포의 지명을 한자 그대로 ‘거북’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경우를 살펴 보자.

(4) 구포(龜浦)라는 지명(地名)은 거북 ‘龜’자로 시작되므로 거북이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내려 오고 있다. 그 중에서 『양산군지(梁山郡誌)』에 나오는 구포에 관한 기록은 ‘設倉庫曰南倉 泛舫山一脈 洛水 頭載 石狀 如龜’라고 하여 “창(倉)을 설치하였으므로 남창(南倉)이라고 하며 범방산(泛舫山)한 줄기가 낙동강 물을 향하여 머리에 돌을 이고 있는 모습이 거북이와 같다”는 연유에서 구포 지명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범방산은 백양산(운수산) 줄기로서 강변 쪽으로 뻗어 내린 구포의 남쪽 구남마을 뒷산을 말한다. 현재 모라동 쪽에서 구포도서관, 구포여상, 구포중, 모라여중이 들어 서 있는 곳으로 뻗어내려 구포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산이다. 이 산의 형상을 강 건너 쪽 멀리서 바라보면 거북이의 머리와 몸체를 그대로 빼어 놓은 것처럼 닮아 보인다. 범방산 능선에는 온갖 바위들이 소나무와 얽혀 군집해 있는데 『양산군지』의 기록처럼 머리에 돌을 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범방산을 구포 본 동네에서 쳐다보면 산등성이에 거북이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산으로 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처럼 거북이 형상을 한 산줄기에 거북바위까지 있어 구포사람들은 이 산을 거북산이라고 부르는데 구포의 지명이 여기에서 왔다는 것이다. 『양산군지』에는 ‘倉南津有穴 冬出溫氣 士人謂之 龜息津’이라 “창의 남쪽에 구멍이 있는데 겨울에도 따뜻한 기운이 있어 이를 보고 사람들이 구식진(龜息津)이라고 한다”고 했다. 옛날 바다의 거북이가 물가의 모래밭에 구멍을 파고 겨울잠을 자면서 쉬어 가는 곳이라 하여 구포 지명의 유래를 들고 있다. 그래서 거북이가 쉬어가는 갯가로서 ‘거부개’, 즉 ‘龜浦’라는 것이다.(위의 사이트, 같은 날짜)

위 (4)에서처럼 구포가 거북과 관련해서 해석되는 이유는 ‘범방산(泛舫山)한 줄기가 낙동강 물을 향하여 머리에 돌을 이고 있는 모습’으로 바로 지형적 특성에서 비롯한다. 보통 풍수 지형적인 특성은 후대에 붙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북 지형의 유래가 기록된 것이 대부분 조선 후기에 발행된 『양산군읍지』(1786)나 『양산군지』(1899)이며 따라서 거북과 관련된 해석은 후대에 붙여진 해석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신라시대부터 신라와 가야의 군사적 충돌 지역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지역이기에 고유의 지명이 존재했을 것이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한 구포의 ‘거북’에 이끌려 만들어낸 지명 어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범방산’의 모양이 ‘산등성이에 거북이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산으로 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고, 산줄기에 거북바위까지 있어서 ‘거북산’이라고 부르다는 것으로 보아 ‘구포’가 거북의 지형과는 관련이 없고 범방산의 모양에 유추된 해석일 수 있다.<sup>11)</sup> 그렇기 때문

11) <낙동 문화원>의 범방산(泛舫山: 271m)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구포의 서쪽 구남마을에서 모라까지 길게 뻗어내린 산이 범방산(泛舫山)이다. 이 산을 멀리서 바라다 보면 거북이가 강을 향하여 엎드려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구포사람들은 범방산을 거북산이라고 부른다. 모라에서 구포로 이어지는 산 능선이 거북이의 몸통이고, 그 산 줄기가 시랑골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서 낮아졌다가 구포초

에 같은 『양산군지』에도 구포의 거북과 관련한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옛날 바다의 거북이가 물가의 모래밭에 구멍을 파고 겨울잠을 자면서 쉬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북개라고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지명이 산의 모양으로 해석되고 동물의 형태로 해석되는 것은 구포의 어원을 굳이 ‘거북’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며, 그 어원이 거북에서 유래되지 않을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동물칭을 속성으로 하는 지명은 원래의 고유 지명이 그 어원적 유연성을 잃자 그와 유사한 어감의 단어로 대응하여 동물에 관련된 전설을 가지면서 그 어원을 새롭게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등학교 뒤쪽으로 또 하나의 작은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꼭 거북이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범방산의 최고봉에는 거북이가 산을 향하여 목을 내밀고 있는 듯한 바위가 선명하게 쳐다보여 구포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 이곳에는 화강암으로 된 범바위, 멧돌바위, 여근바위 등 온갖 형상의 바위들이 들어서 있는데 범방산이란 이름은 호암골(虎巖谷)에 있는 범바위에서 따온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나 범방산의 글자를 풀이하면 ‘뜰 범(汎)’ ‘배 방(舫)’으로서 배가 정박했다가 뜬다는 뜻이 담겨 있다. 범방산에서 서쪽으로 흘러 내리는 개울물을 경계로 조선시대 동래부와 양산군이 갈라져 있었다. 지금도 북구청 바로 아래쪽 철로 굴다리를 경계로 북구 구포동과 사상구 모라동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곳의 모라쪽에 조선시대 역원시설인 사천원(沙川院) 수참(水站)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구포의 감동진(甘同津)과 함께 두 곳에 큰 나루터를 끼고 배가 드나들던 곳의 배산(背山)으로서 범방산의 지명이 생겨난 것으로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범방산은 일반적으로 ‘범바위’가 있는 산이란 뜻으로 보지만 한자어의 해석을 살펴보면 ‘뜰 범(汎)’, ‘배 방(舫)’으로서 배가 정박했다가 뜬다는 뜻으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배 뜨는 곳에 있는 산’은 산의 지명으로는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원래 고유어로 된 지명이 나중에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그렇다고 원래의 고유 지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한자 지명과 함께 그 흔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인들이 아직도 이 산을 ‘범바위산’으로 부른다는 것을 주목해 볼 때, ‘범방산’의 어원은 ‘범바위가 있는 산’으로 보인다. 한자 지명에서 고유 지명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지명에서 한자지명으로 정착되는 것이 지명 형성 원리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한자 지명이 한자의 뜻이 어렵고 특별한 뜻으로 해석되는 것은 후대에 호사가들이 새롭게 해석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범방산에 있는 ‘호암’이 바로 ‘범바위’이며 ‘바위’를 부산 지역 사람들은 ‘방’으로 발음하고 표기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결국 범방산(범바위산)이 어원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원음에 대응되는 한자로 표기한 것이 범방산(汎舫山)의 해석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곰나루의 경우 ‘곰이 내려온 나루’로 인식하고 있지만 원래 ‘곰’ 즉, 크다는 뜻의 옛말이 그 어원적 유연성을 잃고 ‘곰>곰’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곰’으로 굳어지게 되고 곰과 관련한 여러 전설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4. 구포의 어원 분석

지명 어원의 분석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명정보 즉, 해당 지역의 지형, 역사적 흔적, 관련된 지역 지명, 지명 전설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표기된 여러 지명을 언어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1) 구포의 지명 정보

구포는 낙동강의 하구에 위치한 나루터로 덕천천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구포의 낙동 강변에서 김해시 대동면 대동수문으로 왕래하던 나룻배의 선창일 뿐만 아니라 낙동강 3대 나루터의 한 곳으로 수로 교통과 교역의 시발지이다. 이곳이 낙동 수로의 시발점이자 김해, 동래, 양산의 통로에 위치한 중요한 길목이기에 주변에서 거둔 세곡을 모아두는 남창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큰 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기록 정보를 살펴보자.

(5) 조선시대 구포를 감동진, 감동나루로 불러왔는데 이 감동(甘同)이란 지명도 신(神)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복포(龜伏浦)라는 지명은 구포 남쪽의 거북산이 거북이가 강을 향하여 엎드려 있다는 뜻대로 붙여진 이름이다. 감동진 나루는 낙동강 3대 나루터의 한 곳으로 수로교통과 교역의 시발지로서 강변 언덕위에는 정부의 세곡(稅穀)을 보관하는 남창(南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구포 감동나루가 있는 이곳의 행정지명이

양산군 좌이면 남창리로 나와 있다. 남창을 배경으로 강변에서부터 안쪽 넓은 공터에서 구포장(場)이 있었는데 장타령에 나올 만큼 큰 장터였다.(위의 사이트, 같은 날짜)

(5)에서 구포를 감동진, 감동나루, 구복포(龜伏浦)라고 불렀다는 정보에서 ‘구포, 감동포, 구복포’라는 지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감동포는 甘同浦로 표기한 한자가 고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원래의 지명임이 확인이 되나 구복포(龜伏浦)의 경우, (6)과 같은 다른 지명 정보에 의하면 다른 한자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지명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sup>12)</sup>

(6) ㄱ. 감동포: 구포나루터가 자리 잡고 있는 낙동강변의 포구로서 구법진(九法津)이라고도 부른다.(『부산지명총람』 3권, 101쪽)

ㄴ. 구포나루터: 구포의 낙동강변에서 김해시 대동면 대동수문으로 왕래하던 나룻배의 선창, 감동포(甘同浦) 또는 구법진(九法津)이라고도 부른다. 이 나루터는 조선시대 곡물과 포목 등을 보관하는 창고인 조창이 설치되면서 남창(南倉)으로 부르기도 했다.(『부산지명총람』 3권, 101쪽)

ㄷ. 감동창(甘同倉): 감동진(甘同津) 즉, 구포에 두었던 창.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는데, 양산의 남쪽에 있어서 ‘남창(南倉)’이라고 부른다.(『양산군지』, 1899)

위의 (6)의 정보에 의하면 구복포(龜伏浦)는 구법진(九法陳)으로 표기되기도 하였으며, 아래의 (7)의 정보에 의하면 의성을 감동포성 혹은 ‘구법곡(九法谷)의 진(陳)’이라 하고, 구법(仇法)으로도 표기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2) 지명 표기에서 다른 한자로 나타나는 것은 원래 지명에서 올바르게 해석된 표기가 아닐 수 있다. 어원이 고정되어 그 유연성이 확실할 때는 다른 한자 표기로 나타나지 않는다. 동일한 지명에 대하여 여러 한자로 표기된 것은 어원의식의 부족에 기인한다.(이근열, 「부산 땅이름의 말뭉치 연구」, 『한국민족문화』 2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4)에서는 부산이 ‘釜山, 窟山’으로 표기되는 점을 착안하여 그 어원을 검토한 바가 있다.

(7) 구포왜성지: 의성(義城)을 감동포성(甘同浦城)이라고도 한다. 감동포란 구포를 감동포라고도 했다. 그래서 감동포성이라 기록된 바도 있다. 일본 기록에는 구법곡(九法谷)의 진(陳)이라 쓴 곳도 있다. 이는 구포(龜浦)와 구법(九法)을 일본말로 발음할 때는 그 두 발음이 같다. 그래서 왜군들이 그들 나름으로 쉽게 쓰려고 같은 발음의 글자를 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쓴 것으로는 원구(仇)자의 구법(仇法)으로 쓴 바가 있다. 이는 왜적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쓴 아홉 구(九)를 원구 구(仇)로 쓰게 된 것으로 본다. (『부산지명총람』 3권, 110쪽)

위의 (7)에 나타나 있듯이 구복포는 구법의 진, 구법포, 구법진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러 지명의 표기 시기를 구별해서 그 변화의 모습을 살펴야 정확한 어원을 추적할 수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볼 때, ‘구법곡의 진’으로 표기된 일본의 기록이 앞선 표기로 볼 수 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구법곡에 있던 나루가 구법포이고 여기에 세운 성이 구법진의 성이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법포, 구법진이 선대의 지명이 되는 이유는 역사적인 증거가 뚜렷한 신라성인 구포성이 존재한다는 점, 일본의 기록,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해서 구법진의 한자표기를 아홉 구에서 원수 구로 표기했다는 점 등이다. 아홉 구에서 원수 구로의 변화는 아홉 구에 대한 어원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아홉 구가 지명에서 쓰이는 경우에 그 원래의 뜻을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포왜성이 있던 곳을 생각한 기록자가 이를 원수 구로 고쳐 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거북’과 관련한 ‘구복포(龜伏浦)’는 구포의 거북에 이끌린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복포의 지명은 ‘구법곡(九法谷)>구법진(九法陳) / 구법진(仇法陣)>구복포(龜伏浦)’로의 변화를 설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구법곡에 있었던 감동포성 혹은 구법의 진이라 부른 ‘의성’이다.

(8) ㄱ. 의성산(義城山)의 옛 성터: 의성산(義城山)은 상학산에서 덕천동 쪽으로 뻗어내린 산의 지맥(支脈)이 낙동강변에서 끝나는 표고 약 60m의 동산이다. 이곳에는 신라시대부터 성터가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이 주둔하기 위하여 새로 성(城)을 쌓았다. 성벽은 회전 높이 8m, 최고 높이 10m인데 쌓아진 위치나 축성한 방식이 전형적인 일본식 성터이다.

ㄴ. 의성마을: 의성이란 마을 이름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전설에 의하면 낙동강을 국경으로 가야와 신라가 대치하고 있을 때 왜구가 크게 쳐들어 온 적이 있는데, 신라 장수 황룡(黃龍)장군과 휘하 장수가 필사적으로 싸워 왜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켰지만, 부상으로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나라를 위해 의로운 죽음을 택한 장군과 군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성 이름을 의성(義城)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구포왜성은 덕천동 510, 511, 산 93번지 일대에 위치한 왜성이다. 이 성은 임진왜란 때 왜장 소조천용경(小早川隆景), 입화종무(立花宗茂) 등이 김해와 양산 사이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 쌓은 김해성의 지성이다. 이 성은 일명 의성, 감동포성이라 하며, 구법곡의 진(陣)이라고도 한다. 이 ‘왜성’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면서 잘못 음역(音譯)되어 ‘의성’으로 불리어졌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성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어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부산지명총람』 3권, 149쪽)

‘의성’은 (6)에 나타난 것처럼 구법포, 감동포에 위치한 성으로 신라시대 성을 이음하는 것이다. 후대 임진왜란에 왜군이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그 위에 다시 성을 쌓아 왜성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왜성에서 의성으로의 변화는 설정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의 위치와 규모 등에 의해 성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왜성>의성’은 성립될 수 없다.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의성’으로 명명하는 것은 일반적 명명 방식에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의성(義城)의 옳을 의자에 이끌려 후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지명에서 ‘義’는 ‘옳을 의’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클 의’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조선 선조 때의 유희춘이 증보한 『신증유합(新增類合)』 하권 1에 ‘義: 마르·의’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보면 ‘義’가 ‘마르’ 즉, ‘말, 마루’의 뜻으로 ‘크다, 높다, 으뜸이다’로 해석될 수 있다. 현대어 ‘말벌, 말조개’ 등에서 보듯 ‘마루, 말’은 다른 것보다 우수하고 큰 것에 붙이는 가지이다.

김영만(2007)에 의하면, 德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지명에서는 큰 덕으로 해석하고 義는 ‘옳을 의’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클 의’라고 했으므로 지명에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3)</sup> 이처럼 ‘의성’은 ‘큰 성’으로 이곳의 위치인 ‘德川’의 ‘德’과 관련된 지명이다.

덧붙여 의성은 큰 성으로 성의 규모에 의해서 명명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인근 증산에 있던 증산성과 관련된 것이다. 양산 증산성은 양산읍의 입구에 위치한 중요한 성으로 ‘예성’ 혹은 ‘애기성’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 축성 시기도 의성과 유사하며 변화의 과정도 동일하다.<sup>14)</sup> 그러나 양산의 증산성은 그 면적이 0.283km<sup>2</sup>

13) 또한, 덧붙여 ‘孝’도 일본에서는 높다고 하는 것이므로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德’을 ‘큰 덕’이라 하고, 일본에서 ‘孝’를 ‘높다’고訓한 것은 한일 양언어에서는 ‘德’이나 ‘孝’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크다, 높다’는 말로만 표현한 때문으로 추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德, 孝道’가 우리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큰 덕’ 따위는 습관적으로 쓰는 글자 이름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4) 『물금읍지』에 의하면 증산은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시루처럼 생긴 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63호로 지정되었으나 1997년 일제시대 등록문화재 재심의를 일본(왜)성이라는 이유로 사적 지정에서 탈락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설에 증산 서쪽 낙동가의 사지리(沙旨里)라는 마을 이름에 착안한 사지성(沙旨城) 혹은 사도(沙道)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도성(沙道城)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도성은 영덕 부근의 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과 김해 각성산의 城址로 보아 증산은 물금에 있는 증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현재 증산 마을 뒤편과 남부동 뒷산 능선으로 이어진 성터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을 뿐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 정상 부위와 남쪽 등성에 왜인들이 왜성을 축조하면서 거의 훼손되었고 또 경부선 철도 부설시 마지막 남은 서쪽성 일부가 모두 허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상부 서쪽성 기단층에는 신라성의 흔적이 보이며 그 기초 위로 왜성을 쌓은 흔적이 보이고 伊達政宗이 쌓았다고 해서 이달성지(伊達

이고 의성은 0.295km<sup>2</sup>이므로 크기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산의 ‘예성, 애기성’은 ‘왜성’에서 바뀐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의성은 성의 규모에 의해 명명된 것이 아니다.

의성의 ‘義’가 ‘德’과 관련 있는 것은 이곳의 위치가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양산과 동래로 향하는 길목에 큰 마을이 있기 때문이다.

(9) 덕천동 고분군: 덕천동 고분군은 낙동강 하류의 동쪽 기슭이자 금정산 서쪽 기슭인 덕천동 산 51~54번지 일대가 된다. 이 고분군은 주택공사의 대단위 아파트부지 조성에 포함되어 정지작업 중 확인되었다. 규모는 약 2천 평이나 된다. 고분군은 발굴조사 전에 유적지 일부가 잘려 나갔고 남은 부분도 조사 결과 장기간에 걸쳐 도굴을 당한 상태였다.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부산시립박물관이 주관한 조사팀에 의해 1981년 1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계속되었다. 조사된 고분은 모두 67기(基)였다. 그러나 이미 파괴되어 잘려나간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 유적은 상당한 규모의 밀집 고분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조사된 고분군은 수혈식석실묘(竪穴式石室墓)와 횡구식석실묘(橫口式石室墓)의 두 종류이고, 수적으로는 수혈식이 3기, 횡구식이 6기로 이 유적은 횡구식 석실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분의 연대는 횡구식이란 묘제(墓制) 자체가 가야묘제(伽倻墓制)로서 마지막 단계의 것으로 AD 6~7세기로 보고 있다. 고분군은 전(前)시기의 1회용 단장묘(單葬墓)인 수혈식석실묘에서 여러 차례 추장(追葬)을 한 가족묘로 그 묘제가 바뀐 것을 보여주는 가야말기의 고분군으로 묘제를 통한 이 시기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부산지명총람』 3권, 144쪽)

城地)라고도 부르고 있음을 『물금읍지』에서 밝히고 있다. 이 일본식 석성은 정유재란시毛利秀元, 小早川秀秋 등이 쌓고 黑田長政 부자가 수비하였다고 하며 성에 이용된 돌은 황산역(黃山驛)의 석축을 허물어 이용하였다고 한다. 이 때 수비를 맡은 黑田長政은 다음해 3월 13일 풍신수길(豐信秀吉) 명령에 의하여 본성에서 철수, 감동포성(甘同浦城)으로 옮겨 간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는 석축이 대부분 무너진 채 성곽 일부가 남아 있으나 이 일대가 공동묘지로 사용되면서 성내외는 민묘(民墓)로 가득차 있으며, 성의 총 둘레는 약 1.5km이고, 높이는 12.8m이며, 남쪽 성지는 높이가 9m이고, 둘레가 300m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9)에서 살펴 보듯이, 금정산에서 발원한 덕천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넓은 퇴적 지역으로 고대에도 높은 문화가 발달된 곳이며 후대에도 양산과 동래로 가는 주요한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이 확인된다.

(10) 덕천동: 원래의 덕천동은 속동 또는 속등(淑憵) 마을과 남산정(南山亭)·의성(義城)·기찰(譏察) 마을 등 4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구포에 포함된 지역으로 불려지기도 했으나 마을 이름은 꼭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 동리(洞里)가 문헌상에 덕곡촌(德谷村)이라 기록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낙동강변의 덕천천(德川川) 하구에 자리잡은 덕천동은 한동안 구법곡(仇法谷)이라고 불렸으며 감동포(甘洞浦) 또는 감동진(甘洞津)이라고 하여 구포에 포함시켜 불리기도 하였다.

금정산 상봉(上峰)인 상계봉(上鷄峰) 또는 상학봉(上鶴峰)에서부터 안산암(安山岩)과 규장암(硅長岩) 사이를 뚫고 계류(溪流)가 굴곡을 지으며 4km 정도로 흘러서 낙동강에 들어가는데 이를 덕천천(德川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시내 이름은 원래 덕천(德川)이었을 것이다. 덕천동의 마을 이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덕곡촌(德谷村)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흐르는 시냇물을 덕천이라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덕곡천의 냇물 이름을 따라 덕천동이라고 부르게 되니 이와는 구별을 위하여 냇물 이름을 덕천천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덕곡촌이라는 마을이름은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불린 이름이며 아마도 만덕사(萬德寺)와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덕천동은 만덕사로 올라가는 입구에 위치한 마을이다. 그리고 속동·남산동·의성 등의 마을 이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속등(어떤 지도에서는 속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함)은 수정(成亭)에서 나온 이름이 와전(訛傳)됐을 것이며, 남산정(南山亭) 역시 구포왜성(龜浦倭城)이나 금정산성과 관련된 이름일 것이다. 의성마을도 구포왜성을 의성이라고 부른 데서 나온 이름일 것이다.(『부산지명총람』 3권, 141~142쪽)

이곳은 (11)에서 보듯이 ‘고려시대에는 만덕동 하리까지 배가 오

르내렸지만 옛날의 뱃길이 토사(土砂)의 퇴적으로 밀려나고 현재는 육로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있다'는 것으로 보아 '덕천'은 지금보다 넓고 큰 하천이었고 구법진이 중요한 교통의 요충임이 확인된다.

(11) 덕천(德川): 덕천(德川)이란 만덕쪽에서 흘러내리는 큰 하천이란 뜻이 담겨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만덕계수(萬德溪水)로 나와있다. 상학산(上鶴山)의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물들을 받아 안고 서쪽으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를 따라 흘러서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덕천인 것이다. 덕천 냇물의 가장 큰 줄기는 금정산성 남문 쪽에서 흘러내리는데 병풍암 석불사에서 흘러 온 병풍천을 합류하여 계곡이 넓어진다. 이 물이 흘러내려 만덕사 옆 용을천 냇물을 받아 안고 만덕중리 아래 웅덩이가 있었다는 전설의 중시골을 지나 하리의 물탕골 계곡물을 합수하여 완만히 흐르다가 기찰 맞은편 음정골 물을 받아 넣어 강으로 유입된다. 덕천의 하구 지역인 연동개는 1900년대 초 경부선 철로가 놓이기 전까지만 해도 기찰(譏察)이 있던 구법진(仇法津)까지 배가 드나들었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만덕동 하리까지 배가 오르내렸다고 한다. 옛날의 뱃길이 토사(土砂)의 퇴적으로 밀려나고 현재는 육로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있다. 덕천(德川)은 원래 하천의 이름이었으나 동네이름과 구분하기 위하여 행정지명은 덕천천(德川川)으로 되어 있다.(위의 사이트, 같은 날짜)

결국, 이 지역은 유물의 흔적, 관련 지역의 지명 등으로 보아 만덕 계곡에서 흘러나온 큰 물이 낙동강과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지명의 연원이 신라 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명임이 확인된다.

## 2) 구북포, 감동포, 구포 어원

신라의 지명으로 그 연원이 가장 오래된 구법포를 살펴보자.

고대 지명은 해당 지형 및 지물과 관련한 고유어를 한자로 옮긴 것이므로 한자 표기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구법’은 ‘九法’ 혹은 ‘仇法’ 등으로 서로 다른 한자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九’는 훈차가 아니라 음차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대 국어는 유기음의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구’의 음은 고유어 ‘크다’의 ‘크’에 대응된 표기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박병채(1990)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박병채(1990)는 ‘仇火縣 或云高近’을 예로 들어 고대 지명 표기의 ‘仇’가 ‘高(大)’와 대응됨을 밝히고 있다. 즉, ‘仇’가 尤韻 群母(巨鳩)로 중고한음은 kjiaŋ이고, 국어 한자음은 ‘ku-’이기 때문에 중기 국어의 크-(大)와 대응되며 ‘高’는 ‘大’와 상통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仇’가 ‘大’와 대응되는 한역 예로는 단수지명에서 ‘大城郡本仇刀城’의 표기의 보기로써 확인되며 ‘仇’가 群母로 무기유성음 g-이지만 국어한자음에서는 무기무성음 k-로 반영되며 따라서 중기국어의 ‘크-’는 격음화를 거친 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sup>15)</sup>

또,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 ‘大城郡 本 仇刀城’의 기록에서도 ‘仇’가 ‘大’와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크다, 높다, 넓다’의 의미로 ‘仇’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의 경우, 지명에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法의 자형의 의미가 물(水)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으로 ‘법’, ‘규정(規定)’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구별하여 징계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자전에 의하면 나뉠셈에서 나누는 쪽의 수로 ‘제수’를 법이라 하고 ‘通周天四分一爲法’에서 보듯 둥근 하늘을

15) 박병채, 『고대국어학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161~162쪽 참고할 것. 한편, 양산의 곡포(曲浦)는 ‘구읍포(仇邑浦)’라고 불렸다. 이 구읍포는 양산천 영대교 근처의 나루터인데, 여기도 원수같은 포구의 仇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해 놓고 있다. 첫째 해석은 역사적으로 왜구들이 이 포구를 통하여 잦은 노략질을 하여 이에 지친 백성들이 원수같은 포구라고 하였을 가능성을 있다는 것이고, 둘째 해석은 상서면과 하서면에서 양산읍으로 들어 오기 위해서는 곡포천을 건너야 하는데 힘들게 만든 독다리가 잦은 홍수로 떠내려가서 건너기가 어려워 원수같은 포구로 명명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물금읍지』, 29쪽) 그러나 이 포구는 ‘구읍>굽-’으로 변화한 것으로 ‘굽-’의 음차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네 개로 나눈 하나를 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법’을 물이 땅을 나누고 있는 ‘갈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구법’의 뜻은 ‘(물줄기가)크게 갈라지는 곳’의 의미로 이곳의 지형적 의미와 부합되는 지명임이 확인된다. 또한 법(法)이 복(伏)으로도 옮겨지는 것은 ‘거북이 엮드린 모양’이라는 생각 때문에 법을 유사한 의미로 바꾼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구포가 ‘龜浦’로 표기되는 것은 구복포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신라의 지증왕 때 한자지명의 개정작업에서 고대의 지명이 2음절로 고정될 때, 첫 음절만 남기고 다음 음절은 생략하여 만들거나, ‘거칠군’에서 ‘동래’로 바뀌듯이 지명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경향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원래의 지명인 ‘구법포’에서 ‘구복포’로 변화하고 이것이 나중에 2음절의 지명으로 개정하는 가운데 첫음절만 남기고 다른 음절은 생략하여 ‘구포’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구복포의 뜻인 물이 크게 나뉘는 곳, 혹은 두 물이 합해지는 곳으로 의미로 해석되어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강 유역의 ‘귀’나 ‘구’는 ‘두물머리’ 즉, 두 강이 합쳐지는 곳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명이다. 즉, 두물머리를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내(二川)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내(耳川), 이내(梨川), 두내(斗川)로 정착된다. 이때, 이내(耳川)는 귀내(龜川), 이내(梨川)는 배내로 옮겨져 주천(舟川)으로 다시 해석되기도 한다. 귀천(龜川)은 발음상 구천(舊川)이나 구천(九川)으로 바뀌기도 한다.<sup>16)</sup> 이와 같이 ‘구(龜)’는 강물의 합류의 지점의 특성을 반영한 지명으로 확인

16) 이에 대해서는 조강봉, 『물줄기의 합류를 소재로 명명된 지명』, 『한국지명연구』, 한국문화사, 2007, 379쪽에서는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명인 ‘이천(二川)’의 ‘이(二)’와 음이 같은 ‘이(耳)’자를 빌어 ‘이천(耳川)’으로 인식하여 표기하다가 이 ‘이천(耳川)’을 다시 훈에 따라 ‘귀내’라 불리다가 ‘기내’로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내(龜內), 구천(龜川), 구평(九坪), 구계제(龜溪齊)’ 등의 ‘龜’자가 귀와 구로 발음되지만 귀에서 ‘ㄱ’음이 탈락하여 기내로 바뀐 것이고 九는龜와 음이 같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여기서 ‘귀내’에서 ‘기내’의 변화를 음운 탈락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나타난 지명이 경상도 지역이란 점을 고려해 ‘귀와 기’의 비변별 때문에 합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될 수 있다.

감동포의 경우, ‘甘同 + 浦’로 분석되며, 속성칭인 ‘감동’의 ‘甘’은 ‘맛이 달다, 맛이 좋다’는 뜻으로 지명으로 쓰일 경우, ‘감천(甘泉)’과 같이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 이외는 음차로 보아야 한다. 감은 ‘곰’의 뜻으로 ‘크다, 높다, 많다’는 뜻으로 간혹 ‘검’이나 ‘곰’으로 어형이 변화하기도 한다.

‘동(同)’은 ‘한가지, 같다’는 뜻으로 ‘간’의 훈차 표기이다. 김영만(2007)은 강원도 춘성시 남산면 수동리(壽洞里)의 ‘나가지’ 마을을 ‘수동(壽同)’이라고 적었는데, ‘壽’는 ‘나’로 혼동되고 ‘同’은 ‘가지’로 혼동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7)</sup> 여기서 ‘同’이 가지로 분석되는 이유는 용비어천가(50장)의 ‘눈 곧 디니이다(散落如雪)’의 ‘곧’과 어원적으로 같으며 여기서 접미사 ‘-이’가 붙어서 ‘곧이>ㄹ디>ㄹ지>가지’로 변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본다. ‘가지’가 지명에 쓰일 때는 물이 나뉘는 지역이나 물이 합쳐지는 지역에 주로 명명된다. 예를 들어 부산 송정은 옛날에 가래포(加來浦)라 불렀는데, 이는 송정천이 바닷가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포구이기 때문에 ‘물 갈라진 곳에 위치한 포구’라는 뜻으로 그 말미이 해석된다.<sup>18)</sup>

결국, 감동포는 ‘크게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나무를 의미하며 구북포에 대응하는 표기로 확인된다.

17) 김영만, 『우리지명의 이모저모』, 『한국지명연구』, 한국문화사, 2007, 250쪽 참고.  
 18) 『부산지명총람』(3권, 232~233쪽)에서는 ‘송정이란 지명은 광주 노씨의 선조가 백사장이 내려다보이고 해송이 울창한 언덕에 정자를 지은 데서 연유한다고 한다. 지금 송정해수욕장 일대는 원래 가래포(加來浦)로 불렀다. 이것은 갈대밭이 있었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래는 갈대를 가리키는 사투리로, 송정천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래가 갈대로 대응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이 지역 방언에서는 갈대는 ‘갈’로 대응되고 ‘가래’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갈대가 많은 포구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가래’가 하천이 해안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갈래진 곳’의 의미인 ‘갈래’ 포구로 해석하는 것이 옳바르다.

## 5. 마무리

본 연구는 ‘갑우개, 굿개, 거북개’ 등의 다양한 어원으로 해석되는 구포관련 지명을 여러 지명 정보를 이용하여 새롭게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구포는 감동포, 구법포, 구북포 등 다양한 지명으로 불리며, 신라성인 의성이 있고 큰 하천인 덕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고대부터 대단위 주거 단지가 있었으며, 동래와 양산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군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구포를 단순히 거북이라는 한자음에 이끌려 해석하면 다양한 지명을 해석할 수 없고 관련 지명과 지물의 상관성을 설명할 수 없다. 여러 지명 정보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덕천은 큰 하천으로 이곳에 위치한 신라성인 의성은 ‘큰 성’으로 덕천에 위치한 성으로 보이며, 구법포는 큰 물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나무로 해석되며 감동포도 역시 ‘큰 갈래에 위치한 나무’로 구법포와 그 어원을 같이 한다. 구포는 구법포에서 2음절 지명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두물머리인 이포에서 귀포로 바뀌고 이것이 거북구로 바뀌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구법포나 감동포, 구포는 두 물이 만나는 곳, 혹은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큰 나무라는 뜻으로 어원을 추정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영만, 「우리지명의 이모저모」, 『한국지명연구』, 한국문화사, 2007.
- 남구 북구 해운대구편, 『부산지명총람』 3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7.
- 도수희, 『한국지명연구』, 이회, 1999.
- 박병채, 『고대국어학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이근열, 「부산 땅이름의 말밑 연구」, 『한국민족문화』 2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 \_\_\_\_\_, 「동래의 연원과 그 말밑 연구」,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 \_\_\_\_\_, 「부산 동래 지역 고개 연구」, 『우리말연구』 제23집, 우리말학회, 2008.
- 전우용, 『서울은 깊다』, 돌베개, 2008.
- 조강봉, 「물줄기의 합류를 소재로 명명된 지명」, 『한국지명연구』, 한국문화사, 2007.
- 천소영, 『한국 지명어 연구』, 이회, 2003.
- 두산동아, 『두산 백과사전』.
- 『물금읍지』, 물금읍지편찬위원회, 1998.
- 『양산군읍지』, 1786.
- 『양산군지』, 양산군, 1899.
- 『양산군지』, 양산군, 1980.
- <http://nakdong.kccf.or.kr> (검색일: 2008. 12. 20)

<Abstract>

## An Etymological Study of Busan Gupo

Lee, Geun-Y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ewly indicate the place name about Gupo(龜浦) interpreted as various etymologies, Gapuge, Gutge, Geobukge etc. Gupo is named different place names, or Gamdongpo, Gubeoppo, Gubokpo and so on. It has the castle of Silla Uiseong(義城), and stands on the place where a great river, Teokcheon, joins the Nakdong-river. Because it has been the habitat keeping a lot of residence since the ancient times, and was the site headed for Dongre and Yangsan, Gupo was considered important militarily and culturally.

If it is interpreted by the sound of Chinese characters simply, Gupo can be explained neither as various place names nor as the interrelationship of place names and natural and artificial objects on earth concerned.

After using a variety of information on the place name and interpreting it, I suppose that Deokcheon may be a great river, Uiseong, a castle of Silla, be a big castle standing at Deokcheon, Gubeoppo and Gamdongpo be a ferry where a great river is separated.

We can see that 2-syllable Gupo may be changed from Gubeoppo, but, at the same time, see that Gupo may be changed from Epo, meaning 'Two river join together', and then might be named Geobok. In this way, we can suppose that Gubeoppo, Gamdongpo, and Gupo are a wide ferry located at the place where two rivers join, or are separated.

\* Key Words: Busan Place Names, Gupo, Gubeoppo, Gamdongpo, Geobukge

· 논문투고일: 2009년 2월 5일 · 심사완료일: 2009년 3월 4일 · 게재결정일: 2009년 3월 17일